

# “경쟁력 강화 위한 출판진흥책 필요”

## 출협 제17회 출판경영자 세미나 개최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나춘호)는 지난 7월4일부터 6일까지 제주도 서귀포 칼호텔에서 제17회 출판경영자 세미나를 가졌다. ‘21세기 한국출판의 세계화 방안’의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완상 한국방송통신대 총장의 기조연설과 함께 하진규 문화체육부 문화산업국장의 <개방화 시대의 출판정책>, 윤은기 한국정보전략연구소 소장의 <출판경영자의 위기관리능력> 등 주제발표가 있었다.

세미나 마지막 날에는 출판계 현안에 대한 출판계 단체별 설명회도 개최,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세미나 발표내용을 요약 발췌해 신는다.

### 21세기 한국출판의 세계화 방안

한완상(한국방송통신대 총장)——오늘날 세계는 탈냉전 정보화로 급격한 변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 재택시대에 새로운 삶의 양식이 출현함으로써 핵가족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직접 참여민주주의가 실현되며 정보산업이 가장 중요한 기간산업으로 자리하게 된다. 정보 흐름이 자유로운 만큼 정보상품에 대한 지적 재산권 보호는 더욱 강력해진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출판문화, 세계인을 길러내는 출판문화를 창달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다른 문화의 시각에서 자성하는 능력을 배양시키며 지구 공동체인민 인식에 필요한 출판문화가 요구된다. 더불어 서양보다 2백

년 앞선 활자문화를 가진 우리가 현재 출판산업이 후진돼 있음을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 결국 가장 토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임을 알고 창의력을 지닌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 개방화시대의 출판정책

하진규(문화체육부 문화산업국장)——70년대가 규제의 정책이었다면 80년대는 규제완화, 90년대는 산업지원의 문화정책을 펴왔다고 말할 수 있다. 95년부터 시작된 서점 인쇄 출판계의 개방과 함께 뉴미디어 시대를 맞아 출판산업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그런 가운데 세계 주요국가의 출판산업은 비록 증가율이 둔화되기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전자출판과 인터넷 등 탈종이화 현상도 두드러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양적으로 세계 10대 출판대국이라 하지만 질적으로 취약한 형편이다. 따라서 대내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출판진흥책 개발이 요구된다.

출판업계가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 진행해왔던 과중출판정보산업단지의 건립은 반드시 성사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학술출판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진흥기금을 마련, (재)한국출판금고에서 우수학술도서에 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출판자금의 융자문제 역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 전자출판의 경우, 음반비디오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지 않도록 배제할 것이다.



지난 7월 4일부터 3일간 열린 제17회 출판경영자 세미나.

유통부문에 있어서는 물류센터와 출판정보센터의 전산화를 시도하고, 현재 우편제도를 출판사에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 또 다품종시대를 맞아 도서매장 확장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철도역사 등 공공기관에 도서코너를 확보하도록 하겠다. 북클럽을 공공도서관과 연계해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반품도서 처리문제다. 전례없이 높은 반품률을 낮추기 위해서 재고도서 상실 판매장 등도 검토하고 있다.

소비 부문에 있어서도 몇가지 정책방향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공공도서관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책에 대한 관심을 끌도록 이벤트 등 수요창출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도

생각해볼적이다. 인프라 구축문제도 중요하다. 각종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은 물론, 4년제 출판관련학과가 증설되도록 하겠다. 우리나라는 아직 출판연구와 정보를 종합하는 정보기관이 없다. 한국출판연구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

### 조합부지에 대형빌딩 건축

박기봉(한국출판협동조합이사장)——출판인들의 협동조합 운동의 시작이었던 한국출판협동조합 본래의 목적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 출판계 전체의 이익을 키워나가기 위해 첫째, 유통사업을 책의 분야별로 특화, 전문화시키겠다. 둘째, 그동안 논의 단계에만 머물러 왔던 공동구매사업 계획을 수립중이다. 셋째, 여신업무도 대폭 확대할

## 지혜로운 삶으로의 여행

“지혜로운 삶으로의 여행” 시리즈는 포토 에세이, 잠언, 명상 만화 등 거창하지 않으면서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접하기 쉬운 형태의 철학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방법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 및 일반인을 위해 서광사에서 새롭게 마련한 기획입니다.



지혜로운 삶으로의 여행 4  
하나와 둘이 1  
발터 코스트너 글·그림  
임종태 옮김

● 16 x 18cm/양장/48면/각권 4,000원



지혜로운 삶으로의 여행 5  
하나와 둘이 2  
발터 코스트너 글·그림  
에드. 김찬우 옮김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지혜로운 삶으로의 여행 6  
하나와 둘이 3  
발터 코스트너 글·그림  
임종태 옮김

130-07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영업부 924-6161 편집부 924-6165 팩시밀리 922-4993

# ‘간행물윤리위’ 청소년 권장도서 선정

## 문학·역사·정치 등 10개 분야에 총 30종 발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권혁승)는 여름방학을 맞아 제 22차 청소년 권장도서를 선정 발표했다. 각계 전문가와 출판사의 추천을 받아 서평위원회의 토의를 거쳐 선정한 이번 권장도서는 10개 분야 30종이다. 출판사로는 문학동네, 민음사, 솔, 고려원이 각 2종씩 선정됐다. 선정된 목록은 다음과 같다.

▲문학: 《휠휠》(정찬주, 열린세상) 《연어》(안도현, 문학동네) 《박두진 문학정신》(박두진, 신원문화사) 《파리의 앵무새는 말을 배우지 않는다》(김민숙, 고려원) ▲역사: 《우리역사의 여러 모습》(이기백, 일조각) 《중국은 한 나라가 아니었다》(신형식, 솔) 《문화의 산길 들길》(정재훈, 화산문화) ▲정치: 《정치가 뭐길래》(페르난도 사바테르, 진미디어) ▲경제·경영: 《21세기 예측》(클라우스 슈밥 편, 매일경제신문) 《노동의 종말》(제레미 레프킨, 민음사) 《코아 컴피턴스 경영혁명》(G. 하멜 외, 신구미디어) ▲사회: 《21세기 한국과 최선진국 발전 전략》(신용하, 지식산업사) 《메가트렌드 아시아》(존 나이스비트, 한국경제신문) 《인간과 성》(로제 카이유와, 권은미) 《그림으로 보는 황금가지》(프레이저, 까치) ▲철학: 《문명의 위기와 문화의 전환》(박이문, 민음사) 《소크라테스의 비밀》(I.F. 스톤, 자작나무) 《불교와 인도사상》(비슈와나스 프라사드 바르마, 예문서원) ▲과학: 《고전물리학의 창시자들을 찾아서》(에밀리오 세그레, 전파과학사) 《자연의 슈퍼모델》(현원복, 동아출판사) ▲예술: 《씨네 마니아》(여석기, 솔) ▲교양: 《선천택》(안병무, 범우사) 《생명일기》(루이스 최,

김영사) 《수의 신비와 마법》(프란츠 칼 엔드레스 외, 고려원) 《문명속으로 뛰어든 그리스 신들》(강용천, 사계절) ▲아동: 《아이들은 시집 속에서 꿈꾼다》(이상현, 새남) 《안녕하세요, 벨 박사님》(주디스 조지, 비룡소) 《말하는 거북이》(문선희, 현암사) 《동화로 엮어가는 쉬운 글쓰기》(김병규, 다섯수레) 《미미와 뽀뽀네집》(김향이, 대교)

### 출판연구소 ‘제5회 출판포럼’

재단법인 한국출판연구소(이사장 김경희)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7월 15일 오후 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에서 제5회 출판포럼과 창립 10주년 기념 리셉션을 가졌다.

‘21세기 출판문화 발전을 위한 산학협동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전영표 신구전문대 출판과 교수, 허창성 평화출판사 사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김주팔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회장, 홍우동 인쇄문화협회 부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어 열린 리셉션에는 출판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 창립 10주년을 축하했다.

### 한길사 ‘문화체험 이벤트’

한길사(사장 김연호)는 여름방학을 맞아 ‘이탈리아 문화예술기행’에 이어 후속 ‘문화체험 이벤트’를 개최한다.

《한국의 암각화》출간기념 이벤트로 펼쳐지는 울산일대 암각화 유적지 답사는 8월 3일부터 1박2일로 치러지며, 한길사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열리는 독자수련회는 8월 9일부터 2박3일간 지리산 덕천서원과 해남·강진 일대에서 개최된다. (542-8727)

계획이다. 조합이 출판업계의 실질적인 자금공급기관이 되도록 하겠다. 넷째, 현 조합의 부지 1354평에 대형 오피스빌딩을 건축, 조합원들에게 임대할 계획이다. 이미 조합 앞 도로를 폭 25m로 확장하기로 결정돼 있어 3개년 계획이 완료되면 마포일대는 새로운 출판타운이 형성될 것이다. 다섯째, 공동창고시설을 확충하겠다. 파주출판단지로부터 7.8분 거리에 공동물류센터 1만9천평을 계약해 대형 창고를 지을 예정이다.

### 내년 하반기에 시범단지 입주

이기웅(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미 여러 차례 설명한 바와 같이 파주단지는 한국출판산업의 세계화를 실현하는 전진기지의 역할을 할 것이다. 96년 7월 개발계획이 결정됐고, 국방부, 건설교통부와 군사시설 보완협약의 수도권 정비계획 반영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국가산업단지 지정되면 환경부의 환경영향 평가와 건설교통부의 대규모사업 심의를 거쳐 96년말 실시계획을 승인받게 된다. 98년까지 단지조성공사를 끝내고 건축공사를 시작하면 99년까지는 단지가 완공될 것으로 본다.

### 철저한 지역별 배송

윤석금(한국출판유통주식회사 회장)——현재 480억원의 자본금을 올해안에 500억원 규모로 늘릴 예정이다. 얼마전 합병한 서울출판유통의 거래처를 바탕으로 오는 8월부

터 사업을 시작한다. 현재 총주주 384개사로서 98년까지 1천200억원, 2000년까지 4천억원, 2006년까지 2만 800억원으로 증자할 계획이다. 이천 물류센터(1천9백평)는 보관 집적 분배의 업무로, 구로동 서울창고(754평)는 소형차에 의한 지역별 배송의 역할을 맡고 있다.

### 출판정보의 인프라 구축

강경중(한국출판정보통신주식회사 대표)——출판사, 도매, 서점, 독자 사이의 컴퓨터 통신에 의한 출판유통 VAN은 시급한 과제다. 우선 사업내용은 크게 네가지로 나뉜다. 첫째, 출판전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 도서 및 유통, 업체의 수집 가공된 출판정보를 공동전용회선 통신망을 통해 출판서점업계와 일반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전자우편(EDI)서비스는 출판사도매상의 수주와 입출고, 장부정리를 전자우체국을 매개로 자동 거래하며 서점과 도매상간의 거래명세 등도 마찬가지로 처리된다. 셋째, 서점 도서안내 시스템 제공이다. 서점 규모에 관계 없이 유통되고 있는 도서 정보 30만종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표준 POS시스템 제공이다. 출판DB와 EDI거래확대를 위한 POS 시스템 개발이 시급하며 컨소시엄 설립회사에서 EDI표준에 맞춰 설계하게 된다.

——김지원 기자

국내최초의 종합출판정보 서비스

# 출판정보

## 구독료 안내(주 1회 발행)

6개월 구독시 ▶ 12만원  
12개월 구독시 ▶ 20만원

## 담 당 : 김혜경

연락처 : TEL. (02)271-0494  
FAX. (02)271-0495

## 1. 전국 일간지 출판기자 100여 명과 격일간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기껏 너댓 종류의 신문스크랩만으로 자료조사를 끝냈다고요? 국내 최초의 종합출판정보자료집 「출판정보」는 전국 60여 개 일간지와 주요 주간지의 출판기사를 스크랩하여 제공합니다.

## 2. 21세기의 새로운 화폐는 정보입니다

출판인을 위한 유일한 종합정보지 「출판정보」는 기획, 독자시장, 마케팅 흐름, 출판계동향, 신간정보, 지역정보, 해외정보 등 출판에 꼭 필요한 것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전문서비스매체」입니다.

## 3. 무료 서비스는 꼭 필요한 것만을 제공합니다

- 모든 기사를 검색하여 볼 수 있는 기사검색프로그램과 검색데이터 제공
- 자사의 중복기사를 따로 스크랩하여 팩스로 전송
- 보관용 바인더 제공과 신간정보 무료 게재

발간형식 : 주1회(매주 금요일) 판형 및 분량 : 4·6배판 약 180여쪽 발송방법 : 우편발송

◆궁금하신 분은 지금 연락하여 주십시오. 무료로 1권을 보내 드립니다.